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6차회의

일시:2013년 12월 12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노미향·박흥근·이모속·임효택·조미옥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6명이 참여했다. 독자위원들은 인물과 이슈 중심의 과감한 구성, 다양한 기획과 새로운 편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광주일보 지면에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현안 적극 대안 제시, 광주일보만의 목소리 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직무대행)



수능성적 발표따른 입시 정보
빠르고 상세...수험생 시선집중

이모속 (아크갤러리 관장)



다양한 이슈의 문화면 '강점'
문화도시 해결과제 잘 분석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학교 폭력·교실 생태계 취재
학부모-학교 소통의 장 마련

조정은 신년에도 어렵다는 입장의 기사가 실렸다. 이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고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인구집중지역의 노선확대나 배치시간 조정 뿐 아니라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버스회사 간 운행시간 조정 등 예산과 크게 상관없을 부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1월29일 '차책감 정신지체 장애 50대 남자 자살'이라는 기사는 대포폰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연이 담겼다. 이를 보면서 우선 장애용어를 정신지체가 아닌 지적장애로 표기해야 한다. 또 며칠 뒤 기사는 뇌병변으로 표기돼 혼동을 주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그 대책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 알려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흥근=지난 10월31일자 6면 '홍몰이 된 예향 광주의 도시갤러리'이란 기사는 문화정책에 있어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다. 반면 다양한 현상은 폭넓게 언급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을 맡은 책임자들이 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치적 쌓기에만 몰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발생하기 쉬운 만큼 꾸준한 감시가 이뤄졌으면 한다.

지난 10월30일자 1, 3면은 '평생교육 열풍', '100세 시대 인생 2모작 준비, 배우고 즐기며'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 사회가 왜 평생교육이 필요한지, 시기와 내용 모두가 적절했다고 본다. 독자들이 천천히 음미하며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제시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노년층에게 배우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방안이나 사례를 함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사연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12월2일자 1면을 보면 '캄보디아에 심는 광주정신'이라는 1면 사진이 있다. 캄보디아로 자원봉사를 간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커다란 사진으로 게재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봉사자들이 여행복장에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있다. 과연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인지 의심이 간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일부러 알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자주 발견된다. 좀 더 의미 있는 소식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

▲조미옥=지난 11월에 보도되었던 학교폭력 기사들은 수치상으로는 5년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줄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수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상해'사건이 300건이 넘어간다는 '팩트'에 집중함으로써 옳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금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조치들이 대부분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대응하는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대책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씌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대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로 '반박' 정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이외에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실 생태계'를 충실히 취재해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쏟게 하는 소통의 발판을 제공했다. 이러한 장점에 불구하고 광주일보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다가오는 2014년을 맞아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의 현안들을 '보도'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광주일보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정국과 내릴 줄 모르는 물가, 팽배해져만 가는 일상 속에서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심각해져가는 요즘, 독자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대립 구도를 벗어나 독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다각도 국제 행사와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에 걸맞은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광주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반드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임효택=지난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이른 아침부터 누비면서 광주·전남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놓치지 않고 기사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선수와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이 친숙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이 언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스포츠 독자들은 광주일보의 열정적인 움직임과 세심한 보도에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12일 '수능 시험장 차량 사고 해당 교사 처벌 못한다'라는 기사는 광주를 물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였다. 사고를 낸 수능 감독관은 발생 지점이 학교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았다면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개 항목'에 해당하지도 않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특례법상 공소권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매년 수능에 참여시키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능감독을 기피하는 교사들의 상황을 볼 때 처벌 기준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30일 제·보급선거는 원칙적으로 여야 모두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받는 선거였다. 그런데 광주일보는 보급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일찍 다루지 않았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선거는 없었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집권 여당과 야당이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은 필요했다고 본다.

▲이모속=광주일보 문화면은 지역을 넘어 중앙일간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은 광주일보만의 강점이다. 특히 지난 11월5일 '윗선만 바라보는 문화정책'은 광주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해결 과제를 잘 분석하고 정리했다. 광주에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문화행사가 난무하고,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향후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반면, 거리감을 느끼는 기사도 있었다.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10월 보궐선거 기사 全無
지역 관련 없어도 알려줘야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버스 준공영제 노선조정 문제
광주시 탁상행정 잘 꼬집어

박흥근 (포유 건축사 사무소 대표)



연말 이웃돕기 행사 사진
홍보 느낌 물씬...자제했으면

면, 거리감을 느끼는 기사도 있었다.

'광주시민 저축 가장 많이 하고 가계부채는 특·광역시중 최저' 기사를 보면 광주가 저축을 많이 하고 부채는 적다는 사실을 통해 광주지역 경기가 안정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사에 동의하는 광주시민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광주 부채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집값이 전국 주요도시 중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택대출 부분에서의 편차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11월28일 1면을 보면 '수출 늘고 소비 살아나, 광주·전남 경기 풀리나'기사는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 가을호에 따른 것으로 우리 지역의 체감 경기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라리 경기지표는 어떻게 현재 지역민의 체감 문제를 함께 기사화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을 것이다. 아울러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현실이 다른지에 대한 분석도 곁들였다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었을 것이다. 정부기관 통계와 지역민 체감경기가 차이가 나는 보도가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경기가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느냐 지역민이 느끼는 현실은 어떠한지 좀 더 분석적인 기사가 실렸다면 기사에 더 힘이 생길 것이다.

/정리=양세열기자 hot@·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 한 건축사 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